



임실군은 지난 22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6년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임실N치즈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임실N치즈 '최우수상' 수상

6차산업 경영체 · 지자체 대상... 혁신성 · 경쟁력 · 발전가능성 등 평가

임실군은 지난 22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6년 6차산업 우수사례(지역단위) 경진대회'에서 임실N치즈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2016년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농업생산과 2·3차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을 추진하는 경영체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사업성, 지역 사회 연계성 등을 평가한 결과 두루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상금 500만원도 받았다.

임실군은 1차 산업인 낙농업이 FTA 체결등으로 위협을 받게 되자 2차 산업인 치즈와 요구르트를 생산·가공하여 판매하여 낙농업의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임실치즈마을에서는 주민 공동체를 구성 전국 최초로 낙농체험, 치즈체험등을 도입 3차 산업인 치즈체험관광이라는 새로운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6차산업 대표마을

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실군은 치즈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치즈테마파크를 조성 연간 13만 명 이상의 치즈체험객이 찾는 체험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였으며, 치즈 체험과 마을단위 독특한 농촌체험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 치즈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순풍을 불어 넣고 있고, 치즈를 테마로 한 임실엔치즈축제는 금년 21만명 이상이 방문 오감만족의 대표축제로 자리잡았다.

또한 치즈산업의 성공은 낙농가, 유가공업체, 체험관광업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며 치즈산업의 확대는 농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임실군은 성공적인 6차산업의 주력 제품인 임실엔치즈, 요구르트, 홍보물품 등을 전시하고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고, 임실N치즈의 탄생, 성장과정, 임실치즈산업의 성과,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유한 치즈기획팀장은 "임실엔치즈는 지정환신부의 협동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임실지역에서 생산되는 1등급 원유를 사용 임실치즈&식품연구소의 철저한 기술지원 및 위생관리를 통한 제품을 생산, 임실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이며,

임실치즈체험은 관내 임실치즈마을,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7개소의 치즈체험장에서 연중 실시되고 있어 임실군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고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지정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차산업은 1차산업(농림수산업), 2차산업(제조·가공업), 3차산업(서비스업)을 포함한 산업으로, 농산물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임을 말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올해 살림규모 3198억 편성

2년연속 예산 3천억원 시대... 지난해 보다 185억원, 6.1% 늘어나

순창군이 2017년도 당초예산을 3,198억 규모로 편성 의회에 제출해 2년연속 예산 3천억원 시대를 활짝 열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당초예산 3,013억원을 편성해 3천억 예산 시대를 열었다.

올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185억원, 6.1%가 늘어난 수치로 일반회계는 158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7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편성된 예산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012억원, 특별회계 186억원이며 세출분야 별로는 농림예산이 764억원으로 전체 23.9%를 차지해 최대 규모이며 보건복지 분야 603억원, 지역개발분야 304억원 순이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남계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 54억, 공몽우차장 조성사업 38억,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35억,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7억, 인재숙 기숙중 증축사업 및 리모델링 47억 등 주민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과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26억원, 순창 수체합센터 건립사업 28억원, 쉼 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 18억, 경천 야간경관 조형 시설 설치 15억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투자 선도지구 기반조성 21억 등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미래비전 창출 사업과 어린이 장남감 도서관 설치 3억 등 여성과 아동에 위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황숙주 군수는 "내년도 예산은 건강과 장류의 전략산업 확충 등 미래 변화 선제 대응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위험도로 선형개발사업 등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하였으며, 맞춤형 복지과 저 출산 극복 등 각 분야에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고 업무추진비 20% 삭감과 경상적 경비, 행사 축제예산을 동결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확정된다. /순창=이영철 기자

고창군산림조합, 청사준공과 임산물직매장 개장식

청정한 임산물 공급

고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이 조합원들의 숙원인 청사와 임산물직매장을 새롭게 마련해 문을 열었다.

고창군산림조합은 지난 22일 신청사에서 김영건 조합장, 고창군 김상호 부군수와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 이호근 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산림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준공과 임산물직매장(푸른장터) 개장식'을 개최했다.

대지면적 1,108㎡(약335평) 지상 2층, 연면적 816㎡(246평)의 청사와 임산물직매장은 1층에 금융점포와 사무실, 임산물직매장이, 2층에 휴게공간(힐링센터), 임업후계자사무실, 고창조경수협회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과 임업인의 각종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실도 마련됐다.



또한 임산물직매장을 개장해 지역 내 임산물 생산자의 판로고민을 덜고 고창군민에게는 청정한 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산림조합 김영건 조합장은 "신청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하는 조합, 미래를

준비하는 조합, 조합원과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김상호 부군수는 "고창군산림조합은 지역 산림경관을 책임지며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용호 의원, 대한민국 참봉사 '대상'

지역발전혁신대상 부문 수상

국민의 당 이용호 의원(전 북 남원·임실·순창)이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중 지역발전혁신대상을 수상했다.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시상식은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다.

수상 부문은 지역발전부문을 포함해 경제, 과학, 인권, 법률, 교육, 의학, 사회공헌, 문화체육예술 등 총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봉사대상 조지위원회 측은 이용호 의원의 시상 이유에 대해 '지역민들의 삶과 밀착된 민생 및 안전 이슈를 발굴하는 등 혁신적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해 미래세대

에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과분히도 상을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은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지역사회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조직위원회(위원장 문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명예이사장)가 주관하고, (주)월드앤미디어그룹(회장 이치수)이 주최하며,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와 대한인터넷신문(발행인 이치수)을 포함한 60여 언론사 및 다수의 기관들이 후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1월 2일, '201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지역사회발전공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순창=이영철 기자



남원시, 교통 혼잡지역 집중 단속

남원시 교통과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연말까지 출·퇴근시간 교통 혼잡지역 집중 단속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남원시에서는 점심시간과 저녁 6시 이후가 교통단속을 하지 않아 불법주차 차량이 부쩍 늘어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한편 보는 이로 하여금 남원시 교통질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는 바, 이에 남원시에서는 출근시간(08:00~09:00)과 퇴근시간(18:00~19:00)에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14일부터 연말까지 약개월간을 출·퇴근시간 교통 혼잡지역 집중 단속 및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마비 및 교통약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통질서 지키기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남원시의 교통질서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남원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단속시간 외에도 차량 및 시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베스트 자율방범대 인증식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23일 팔덕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베스트 자율방범대로 선정된 팔덕 자율방범대(대장 경제춘)에 인증패와 함께 전북청장 감사장을 전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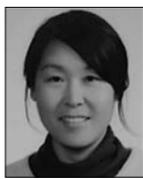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유성남 전북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전규래 팔덕면장, 김영 순창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팔덕 자율방범대는 야간순찰활동의 내실화로 여성범죄 등 각종 범죄예방과 4대 사회악근절, 교통질서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매년 130만이 다녀가는 순창군의 대표적인 명소인 경천산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질서유지, 교통관리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되었다.

순창경찰서는 지난 2014년 인계자율방범대가 선정된데 이어 두번째로 선정되는 등 지역치안안전에 자율방범대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순창=이영철 기자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 안남귀 현 부위원장 당선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 제7대 위원장에 안남귀 현 부위원장이 당선됐다.



고창군공무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실시한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제7대 임원선거에서 위원장에 안남귀 후보, 부위원장에 유춘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공무원노조 최대 현안인 성과평가제 폐지 및 퇴출제 저지 투쟁을 이끌게 된다.

안 당선자는 "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 조합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평가제 폐지 및 퇴출제를 저지할 것이며, 군민에게는 참봉사를 조합원에게는 복지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춘향장학재단, 교육 환경 조성 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이환주)은 남원 교육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64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7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임원 선출, 기본재산 편입, 춘향인재장학생 선발 개정 및 신설 등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였다.

특히, 우수 상위권대 장학생 선발 규정 폐지 및 대학생 보람 장학생 신청자격 개정, 중학생 체육특기 장학생

신설 등 춘향인재장학생 선발 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개정하였다.

2017년도에는 장학생 선발을 비롯해 장학숙 운영, 특성화학교 육성지원 외 4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춘향장학재단은 1995년 설립되어 기본재산 99억8천9백만원(현금 66억6천4백만원, 장학숙 부지 33억2천5백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저수지 정비공사 등 시행

고창군(군수 박우경)이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박우경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정부부처를 수습이 방문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수제 붕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 6억원과 만물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2억원 등 국민안전처로부터 총 8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3일 전했다.

고창 산림면 장수제는 1982년 축조된 노후저수지로 제방 사면이 침식되고 누수가 진행돼 붕괴 위험이 컸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저수지

정비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재해예방과 안정적 용수확보를 통해 저수지 인근에서 경작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65세대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해안 바람공원과 갯벌 체험장이 인접하고 있는 삼원면 만물지구의 마를 뒤편 사면은 매년 호우 때마다 상층 붕괴돼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컸다.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긴급보강공사를 시행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고창갯벌지구의 명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23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군의회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종민 의원(문안?신평?신덕?관촌면), 간사에는 문홍식 의원(임실?성수)을 선임하는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임실군 지난 1년간 군정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살?과?원?소별로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료확인, 개별 질문·답변과 함께 현지 확인 등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